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적 접근

A System Dynamics Approach to shift the paradigm to be highly educated person

김도훈* · 홍영교**

Kim, Do-Hoon* · Hong, Young-Kyo**

Abstract

'JOBLESS GROWTH' is a word to explain the world's common problem of unemployment. But, 'highly educated youth unemployment' is the unique condition that Korea society is facing. In this paper, we determine the cause of the problem with causal loop diagram and reach the conclusion. It is the paradigm to be highly educated person and that paradigm became permanent after the Korean War. People think that only highly educated person can bring wealth and honor, so they spend much money for thei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to enter university. Though young people receive bachelor's degree, they spend much money to get job.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 three solutions. The first is to shift the paradigm to be highly educated person. The second i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of public education as education system of Finland. And the third is to support the youth aptitude.

Keywords: highly educated youths unemployment, shift the paradigm of public education, public education, support the youth aptitude

*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저자, dhkim@sookmyung.ac.kr)

**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공동저자, evanion@sookmyung.ac.kr)

I. 서론

최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화두가 되고 있다. 실업의 문제는 세대와 계층에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각국의 청년 실업 변화율이 전체 실업과 대비해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서원, 2010). 또한 청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의 부재로 경제적 편차가 늘어나 점차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이 저해되어 산업 전반의 토대가 흔들리게 되며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미국이 약 19%, 유럽 국가들이 약 2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10%로 비교적 양호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또한 청년 실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졸 이상으로, 고학력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류지성, 2010; 브레이크 뉴스, 2010).

한국의 청년 실업은 고학력 실업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것은 충분히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스펙¹⁾을 쌓기 위함인데, 이는 대학 학점을 제외하고 구직 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되는 말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토익(TOEIC)이나 토플(TOEFL)과 같은 영어 점수에서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기나 장비의 자격증, 기업의 인턴이나 해외연수 경험 심지어는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수술까지 포함된다.

이렇듯,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더 공부를 하는 현상,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취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나라에는 고학년 청년실업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과거의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이 고착되어 사회가 변화하였음에도 이러한 고학력 지향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스펙은 영어단어 Specification의 준말이다. 이 단어는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 신조어로 등록된 표준어이며,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과 학점, 토익 점수 외 영어 자격증, 그 외 관련 자격증들을 총칭한다(네이버 국어백과, <http://krdic.naver.com>).

II.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 극복을 위한 선행연구들

고학력 청년 실업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은 그동안 발표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고학력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덕규(2006)의 정책자료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서비스업의 역량을 강화하며 부품 및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최병기(2006)와 국회기획재정위원회(2008)에서는 청년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국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외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지원의 해외취업사업 홍보를 통해 한국의 청년들을 해외에 취업시킴으로써 국내 청년실업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연구원(2009)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제도내의 예방적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교육을 통해 진로 및 직업지도를 강화하여 청년 실업자들의 기대임금을 낮추어야만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청년 실업자들의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 기업을 고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남희(2010)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뛰어들어 취업률을 증진시켜야 하며, 산·학 연계를 통한 교육의 강화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표 1〉 고학력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한 선행연구들

선행연구	고학력 청년 실업 극복 방안
김덕규 (2006)	신성장 동력 구축, 서비스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국내외 투자 활성화
최병기(2006) 국가기획재정위원회(2008)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부의 해외취업사업 홍보
한국노동연구원(2009)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 실업자들의 임금에 대한 시각 변화
김남희(2010)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산·학 연계를 통한 교육의 강화,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관점 변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부의 노력과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청년 실업자들의 수에 맞게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신성장 동력과 투자 활성화 또는 해외의 취업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자 한다. 산·학 연계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시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만들자고 건의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연구한 대책들은 어느 정도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왜 더욱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위의 선행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연구에서도 왜 고학력자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즉,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것이 문제점이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기 보다는, 이미 배출된 젊은 인재들을 위한 사후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욱 더 고학력을 지향하고 고학력자들이 많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인과지도를 작성해 봄으로써,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과 고착화 단계를 살펴본 후 그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사회적 격차와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고착화

1. 시대의 변화와 교육에 대한 인식

조선왕조 기간 동안은 뿌리 깊은 유교문화와 신분제 사회로,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이 인정되던 시대는 아니었다. 물론, 과거의 응시 자격은 수공업자·상인·무당·승려·노비·서얼(庶孽)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점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양반이나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양인들 이외의 계층에서는,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양반의 자제들은 어릴 때 서당(書堂)에서 한문의 기초과정을 배운 뒤 8세가 되면 중앙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鄕校)에 진학하였고, 이렇게 수학한 유생들이 소과(生원과·진사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되었다(허홍식, 2003). 조선왕조시대의 교육은 특권층, 즉 왕족이나 사대부 집안의 자녀 또는 과거를 통해 신분상승을 도모하려는 가난한 양반이나 어느 수준 이상의 양인들만 할 수 있었던 일로 누

구에게나 쉽게 열려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었다.

이후 강제적인 한일합방(韓日合邦)을 통해 근대 교육이 일부 실시되었으나, 이때의 교육은 일본이 원하는 충량(忠良)한 제국신민(帝國臣民) 양성을 목적으로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에 한정된 교육을 실시하였다(강만길, 2006). 일부의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특히 일본에서 실시하는 신교육에는 반발심도 높았기 때문에(이이화, 2003), 이때까지의 교육 역시도 매우 제한된 일부에게만 열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이나 습관의 일부로 신분제가 존속했던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계층 간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 버리게 되는 획기적인 위기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그것은 6·25 전쟁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그 전쟁이 어떤 현상을 남겼는가 하는 점이다. 3년간의 전쟁은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다. 더 이상은 누구도 부자가 아니었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진 것이 없는 상태 - 즉, 강제적인 하향평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서중석, 2007).

1950년대 중후반, 즉 전쟁 이후의 교육은 대표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제1유형은 과거의 유습대로, 교육은 특권층만 받는 상류층의 전유물로 판단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초등교육) 정도로 만족하며, 자녀들을 그 당시 산업구조의 기반이었던 농업 사회의 잉여 노동력으로 판단했던 유형이다. 설령 조금 더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력 확보를 중요시 했다고 판단된다. 제2유형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우이다. 과거의 선비 전통이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집안, 또는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유형이 이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제2유형은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통해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거나 전문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은 지식인층이나 전문가 층으로 성장하게 된다.

2.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의 경험과 교육 패러다임의 형성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경제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져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은 많지 않았다. 제1유형에 속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에 남아 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거나 경제성장기의 대도시에서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그 당시 매우 일부에 해당했던 제2유형의 사람들은 경제성장기와 더불어 꽃을 피우게 된다. 고등교육을 받은 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의사, 교수, 선생 그리고 적어도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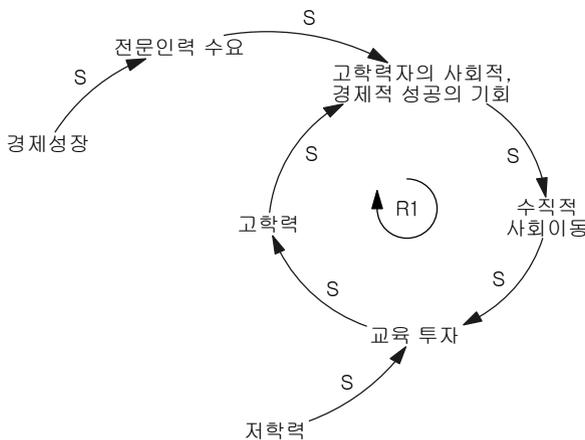
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통솔하는 감독관의 지위를 얻게 된다. 즉, 과거 수백 년 간 아니 어쩌면 수천 년 간 매여져 있던 계층, 신분이라는 벽을 실질적으로 넘어서게 되는 수직적 사회이동(vertical social mobility; Sorokin, 1998)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사회이동은 사회적 위계 체제 속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한 사회적 지위로부터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사회 이동의 기준은 ‘부모’이다. 부모에 비해서 그 개인의 지능, 학업, 사교성, 특기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상승을 할 경우 이를 수직적 사회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직적 이동을 통해 개인은 사회계층 조직 내에서 수입, 직업적 서열, 사회적 명망 등을 얻을 수 있다(장상수, 2009).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나 지인이 교육에 의해 수직적인 사회이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충격은 교육과 지식에 대한 열망과 쇼크로, 1970년대 이후 전 국민을 자극(김영봉, 2008)했다. 교육을 받아야만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만 더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특히 교육을 받은 인재를 중심으로 명예와 부가 배분된 것은, 과거의 기득층이 그만큼 사라진 전쟁 이후의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였으므로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열망은 바로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각 집안의 재산을 팔아 자녀를 공부시키려는 부모들의 교육 투자가 나타났고, 이러한 노고에 부응하듯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더욱 높은 임금을 받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한 수직적 사회이동 경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장상수, 2009), 이러한 흐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고학력에 대한 열기를 더욱 급상승 시킨 것이다.

[그림 1]의 인과지도는 이러한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형성과정을 인과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과 사회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게



[그림 1]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형성

된다. 교육을 통해 고학력을 갖춘 사람들 중 대다수는 수직적 사회적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수직적 사회적 이동을 경험한 세대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고학력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세대에서 저학력으로 수직적 사회적 이동을 하지 못한 세대들 역시 자녀들을 위한 교육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본인 세대에서는 수직적 이동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웃이나 친지의 경험을 통해 고학력 지향의 순기능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자녀들의 수직적 사회적 이동을 열망하며, 교육 투자를 통해 자녀 세대들을 고학력자로 만들고자 한다.

IV. 변화하는 사회와 변화하지 않는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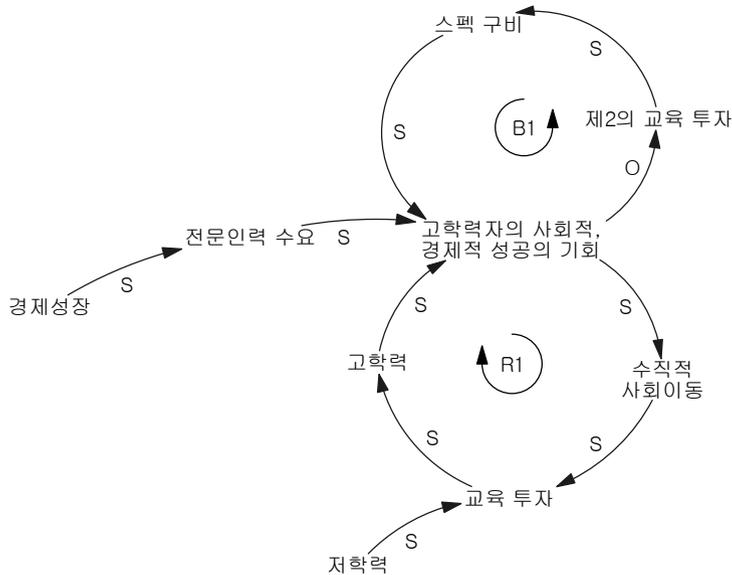
197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즉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던 시기에는 고학력자가 보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고학력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자들에 비해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지위를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계기로, 급성장하던 한국의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구조조정과 퇴출이라는 강제적인 조정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취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게 되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식을 갖추어도, 경험이 많아도 산업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잉여 인력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미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가 되거나 직장을 옮겨야 했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도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고학력 실업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김태훈 · 이거산, 1998).

[그림 1]에서 나타난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형성 인과지도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의 R1은 강화루프이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순환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악순환으로 순환하게 되면 지속적인 악순환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화루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IMF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전문인력의 수요가 줄고, 전문인력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고학력자의 성공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교육투자도 줄어들고 고학력자의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은 다른 방향으로 고착화 되게 된다. 그것은 [그림 2]에 나오는 것처럼 B1 루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즉, 고학력자의 성공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대학 교육 이후에도 제2의 교육투자를 통해 다른 고학력자에

비해 더 완벽한 스펙을 갖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펙을 갖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으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면 고학력을 지향하는 흐름은 계속 지속되게 된다.

부연하자면, 경제성장의 둔화로 전문인력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고학력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패턴이 기존의 R1 이다. 그렇지만, B1 의 형성으로 이러한 방향성에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기회가 적어져도, 고학력자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2차적인 교육 투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제2의 교육의 투자를 통해 취업이 가능해지고, 사회적·경제적 성공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선례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다시 R1은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즉, 지속적으로 교육 투자를 통해 고학력을 지향하려는 열망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2]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진화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을 살펴보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고학력자의 수’이다.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성장기에는 1990년 중반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 인력의 비율이 적었고, 그러한 인재가 필요한 경제 성장기였다. 즉, 아주 한시적으로 고학력자의 가치가 매우 급부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만일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고학력자의 수는 점차 많아졌고, 이러한 고학력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희석되어 왔다는 것이다.

일례로 <표 2>를 보면 이러한 설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취학률은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 중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의 교육회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1980년 이전의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취학률과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1980년도 이전에는 그 수치가 낮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1980년도 당시 고등학교 학생일 나이의 48.8% (약 절반) 만이 학생이었고, 그 학생들 중 상급학교(대학교)에 진학한 비중은 22.6%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2008년에는 고등학교 학생일 나이의 청소년 90%가 학생이고, 그 학생들 중 83.8%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 될수록 고학력자가 매우 많이 배출되고 있다. 고학력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희소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연도별 취학률과 상급학교 진학률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유치원	취학률	2.2	15.7	28.9	26	26.2	31.1	36.2	37.5
초등학교	취학률	97.7	-	100.5	98.2	97.2	98.8	99.3	99
	상급학교 진학률	95.8	99.2	99.8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	취학률	73.3	82	91.6	93.5	95	94.6	96	93.2
	상급학교 진학률	84.5	90.7	95.7	98.5	99.6	99.7	99.6	99.7
고등학교	취학률	48.8	64.2	79.4	82.9	89.4	91	91.3	90
	상급학교 진학률	22.6	36.4	33.2	51.4	68	82.1	82.8	83.8

자료 : 통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은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에 의하면 2007년도의 출생아수가 잠시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사교육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2007년도는 ‘황금돼지띠’의 해로 불리며 그 해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부유해진다는 속설에 의해 다른 연도에 비해 잠시 출생률이 높아졌다(국민일보, 2010).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자녀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

[그림 4]는 고학력자의 수에 대한 논의를 고려한 인과지도이다. B2의 루프를 통해, 저학력 대비 고학력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학력자의 수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고학력자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고학력자의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B2의 루프도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림 4]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꺼운 선으로 표시된 루프이다. 언뜻 보면 [그림 4]는 1개의 강화루프와 2개의 균형루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질적으로는 두꺼운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장 강력한 강화루프이다. 이 루프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고학력 패러다임의 고착화 루프이기 때문이다. 이 루프는 ‘교육투자 → 고학력 → 저학력 대비 고학력자의 수 → 고학력자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기회 → 제2의 교육투자 → 스펙구비 → 고학력자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기회 → 수직적 사회이동 → 교육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강화루프이다. 분명히 [그림 4]은 1개의 강화루프와 2개의 균형루프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순간에 균형점으로 회귀할 수도 있었음에도, 오히려 커다란 강화루프를 형성하고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무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학력자의 수가 많아져서 그 가치가 희석된다 할지라도 수직적 사회이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학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패러다임이 공고화 된 것이다.

이렇듯 고착화된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은 깊은 함정을 숨기고 있다. 우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고학력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하고, 고학력자가 된 이후에는 다시 취업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즉, 충분한 스펙이 구비되지 못하여 취업에 실패한 고학력자는 지속적으로 제2, 제3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야만 수직적 사회이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착화된 교육의 패러다임을 따르다보면 결국에는 특별하게 완벽한 스펙을 갖춘 소수의 취업자와, 부족한 스펙 때문에 계속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대부분의 청년 실업자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당연히 더 공부를 해야하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이야말로 현재 우리나라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V.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전환

그렇다면, 고학력 지향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바람직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선진적인 교육으로 평가되고 있는 핀란드(Finland)의 교육 체계를 살펴보았다. 핀란드의 교육 수준은 세계 교육계에서 “핀란드 메서드(Finland Method)”로 주목할 만큼 수준이 높다. 또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는 ‘평등주의 노르딕 제도(egalitarian Nordic system)’를 갖추고 있다(권충훈·김훈희, 2009).

학생들은 경쟁에 의한 상대 평가가 아니라 ‘달성도’에 의해 평가되는 절대 평가의 원칙을 따른다. 7살에 시작해서 9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며, 이들에게는 무상급식(lukio)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의 종합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특별 학급에 배정되거나, 보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학력을 차별화하여 저학력 학생에 대한 개별 교육으로 뒤떨어진 학업성취도를 보충해준다. 특별히 사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2010).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이나 개인의 적성에 따라 지원 할 수 있고, 실업계(Vocational

〈표 3〉 핀란드의 교육 체계

인문계 학위	실업계 직위		나 이
박사	고용인		
전문자격(licentiate)			
석사	전문대학(신설)		+2~3
학사	전문대학		+3~4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직업학교		18-19
			17
종합학교			16
			15
			14
			13
			12
			11
			10
			9
취학전			8
			7
			6

자료 : Wikipedia.

school)와 인문계(Upper secondary school)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업계 학교는 취업을 대비하여, 직업 교육이나 직업 능력을 배양한다. 인문계 학교는 전인교육(all around education)을 목표로 하며, 대학 과정(tertiary education)을 준비하게 한다. 이러한 체계는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이라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인문계고를 졸업했을 지라도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두 종류의 학교를 동시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실업계 학교 졸업장(certificate)을 그리고 인문계고 졸업생은 인문계고 졸업장을 취득한다. 학 학교 학생들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계 졸업장이나 인문계고 졸업장 그리고 대입 자격시험(kaksoistutkinto)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자격증(kolmoistutkinto)을 취득할 수 있다. 인문고와 실업고 졸업장은 ‘전문대학 입학’에 더욱 중요하며, 대학 입학 자격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핀란드의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실업계에 진학하고, 이들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만약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실업계 학교 교육 이외의 사교육을 통해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수업내용을 배워야 한다. 반대로,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필요한 정도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여 전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대학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육이 모든 취업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핀란드의 교육체계에서는 정상적인 등급 이상으로 졸업을 하고, 모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 입학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실업계 학생이라 할지라도 대학진학을 원한다면 인문계 수업을 교차 수강할 수 있고, 반대로 인문계 학생이라도 취업을 위해서는 실업계 학생이 배우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즉, 특별히 추가적인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히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일정정도 이상의 학점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2010).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굳이 고학력일 필요가 없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계속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요약하자면, 핀란드에서는 공교육이 공고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고학력자가 되고 싶으면 공교육을 따라가면 된다. 굳이 부모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을 가고 싶어 인문고를 진학하더라도 취업교육을 받고 싶다면 교차수강을 통해 실업학교에 가

서 그 수업을 받으면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하여 각 개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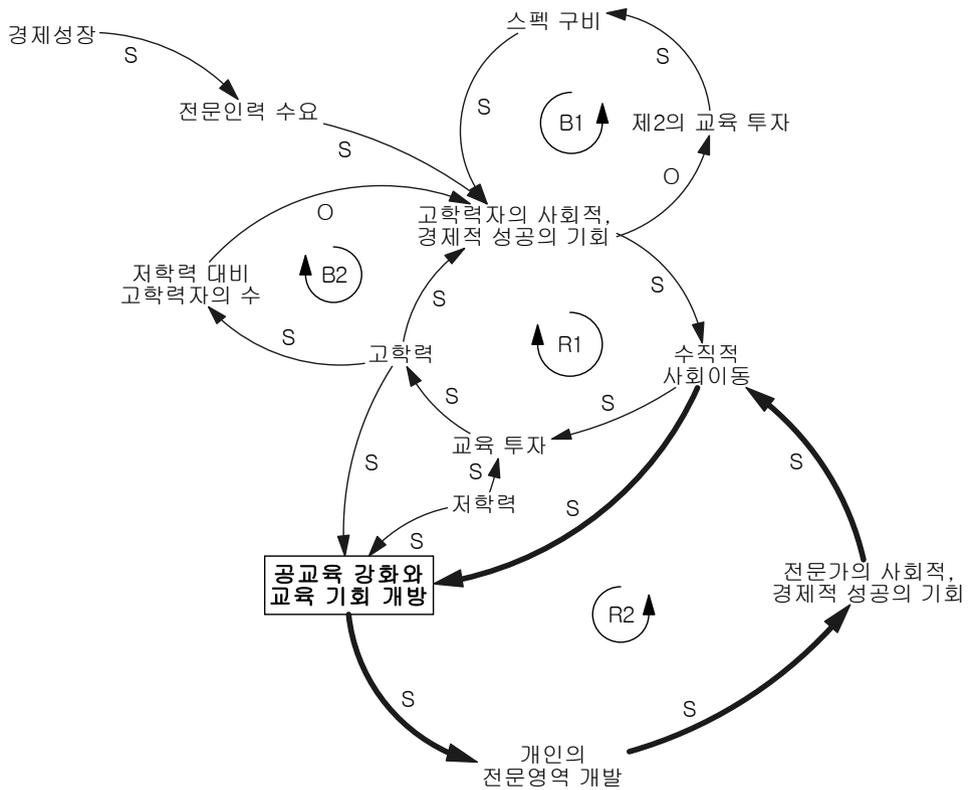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학력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학 정규과정을 마치고 고학력자가 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게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와 같은 경제 발전의 급성장기를 지나 이제 우리사회는 또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은 매우 한정된 시기에 가능했던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맹목적인 고학력 지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공교육의 장이 열려 모든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인문계 학교를 다녀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업계 학교의 수업을 할 수 받는다거나, 실업계 학교에 다니지만 대학입학을 하고 싶다면 인문계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보다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열린 사고를 통해, 단순히 취업을 잘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대학을 직업 선택을 위한 스펙으로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현재 대학의 순기능을 손상²⁾시키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지역의 사회 교육 센터 같은 공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취업준비만 하던 학생도 더 상급학교의 교육을 접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나 젊은이들의 특성이나 성장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나이에 맞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자녀의 꿈이나 목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대학입시가 지상의 과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강명심, 2009).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매우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는 위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이 적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는 R2 루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요인(leverage factor)이 되는 것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 기회 개방’ 변수 이다. 학력이 어떠하던지 간에 공교육의 영역이 강화되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전문영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 일례로, 각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는 적어지고, 취업에 유리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인문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기존의 고착화된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된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인과지도에서 표현하는 전문영역은 자녀나 젊은이의 재능과 특성에 맞는 부문이다. 박세리나 신지애 같은 골프선수, 박태환 같은 수영선수 그리고 김연아 같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고학력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창호 9단과 같은 바둑 고수와 차유람과 같은 당구선수가 대학을 졸업해서 그 분야의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반드시 대학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년간 오카리나를 배워온 16세 소년이 학원 강사가 되기도 하고(YTN, 2010),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10대 창업자의 비율이 2007년 1.9%에서 2008년 5.6%, 2009년 7.6%로 증가(이데일리, 2010)하고

있기도 하다.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입시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전문영역의 선택을 통해 오히려 대학 졸업자 보다 더욱 빠르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또다시 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1970년대나 1980년대에만 해도 대학의 합격과 더불어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고, 철학과 사상을 탐구하며 대학 내의 괴짜로 F 학점을 몇 개나 받아보았는가 하는 것이 기념이 되던 때가 있었다. 최근의 대학가의 모습과는 매우 유리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 후반 이후에서 현재의 젊은이들은 대학 합격과 동시에 고시촌으로 달려가 고시 공부에 매진하거나, 학점을 더 잘 받기 위해 선배들의 강의노트를 얻으려 노력한다. 방학이 되면 인터넷상에 매진하고, 보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한 후에도, 취업은 녹녹치 않은 문제이다. 학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한, 고학력 청년 실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더 좋은 성적을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거의 고학력 지향의 패러다임이 고착되어, 사회가 변화하였음에도 고학력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움직일 수 없이 공고하다고 생각했던 신분의 격차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수직적 증가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이동의 성공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세대들에 의해서 고학력 지향 패러다임은 더욱 공고화 되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부족했던 전문인력이 충분히 충원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순히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요원한 일이 되었다. 즉, 사회이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로 변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고학력에의 욕구로 인해, 치열한 경쟁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학졸업자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학력 지향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학력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취업을 하고 싶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진학을 하고 싶은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도 교육의 장을 개방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자녀의 적성에 가장 적합한 일을 찾아 그를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인과지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아주 작게는 각 개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 쏟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범사회적으로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아닌, 요소요소에 필요한 전문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길. (2006).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
- 강명심. (200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충훈·김훈희. (2009).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 분석과 논의”. 『교육사상연구』 제23권 3호: 55-84.
- 국민일보. (2010. 12. 9). “황금돼지띠, 대입 뺏치는 유치원 경쟁... 평년보다 출산율 10%정도 높아 ‘명문’ 경쟁률 치솟아”.
- 국회 계획재정위원회. (2008). “청년실업 위기극복을 위한 해외취업 활성화 전략 연구”. 국회계획재정위원회.
- 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 김남희. (2010). “고학력 청년실업의 실태와 해결방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덕규. (2006).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김영봉. (2008). 『교육학개론』. 서현사.
- 김태훈·이거산. (1998). 『IMF 실업』. 조선일보사.
- 류지성. (2010).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브레이크뉴스. (2010. 11. 20). “체감 청년 실업률 23%, ‘일자리’ 시장 맡겨라”.
- 서중석. (2007).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 이테일리. (2010. 3. 23). “온라인 창업, 전 연령대로 확산; 10대 창업 급증, 30~50대 남성 참여도 눈길”.
- 이이화. (2003). 『한국사 이야기』. 한길사.
- 장상수. (2009). 『교육과 사회이동』. 그린.
- 최병기. (2006).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2010). 『핀란드 교육혁명』. 살림터.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청년 비취업자의 눈높이 조정과정에 대한 연구”. 노동부.
- 허홍식. (2003).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 YTN. (2010). 용기 있는 10대들의 유쾌한 직업 도전, 2010년 10월 9일.
- 위키피디아. <[http:// en.wikipedia.org](http://en.wikipedia.org)>

통계청. <<http://kostat.go.kr>>

핀란드 교육부. <<http://www.minedu.fi/OPM>>

핀란드의 학교 제도. <<http://www.edu.fi/english/SubPage>>

핀란드 대학교육에 대한 OECD 리포트. <<http://www.oecd.org/dataoecd>>

Pitirim Alexandrovich Sorokin. (1998). *On the Practice of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